광주지역 산업활동 '악화일로'

통계청 발표 3월중 산업동향

자동차·전자부품 생산·건설발주량 감소

산업 생산지수 지난해보다 7.5%P 하락

경기 선행지수도 4개월째 하락 '경기부양' 목소리 높아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기아차광주공장의 생산감소 등의 여파로 지난달 광주지역의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경기 선행지수는 4개월째, 동행지수는 2개월째 하락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에 접어들면서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3월중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산업생산지수는 124.5(2005년=100)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134.6)에 비해 7.5%p 떨어진 것으로, 자동차·전자부품 등의 생산 및 건설발주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자동차의 경우 기아차광주공장의 SUV형 승용차와 대형버스 등의 생산이 1년 전보다 9.2% 줄었다. 같은 기간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통신부문의 생산도 23.8%나 감소하면서 광주의 생산활동 둔화에 주된 요인이 됐다.

특히 광주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로 올 들어 건설발주가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광주의 건설발주액은 53억8천5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73.3%나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국내 경기동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정부가 경기 하강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각종 경제 지표들도 꾸준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의 경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3%p 하락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1.0%p나 떨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10개 지표 중 금융기관유동성과 자본재수입액 등 2개 지표만 개선됐을 뿐 구인구직비율과 재고순환지표 등 8개 주요지표는 모두 악화됐다.

또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도 전월에 비해 0.3p 하락하면서 두 달째 내리막을 탔다.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지난 2006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태성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경기부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민간 부문의 투자촉진 등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美 금리정책 인상 전환땐…

대외 불안 변수 감소 국내 증시 '훈풍' 기대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 끝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금리인하 정책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증시 전문가들은 FOMC가 이번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2.0%로 0.25%포인트 낮춘 이후 금리동결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사이클의 종료는 신용경색 및 경기침체 우려의 완화로 해석되면서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美 금리인하 기조 막 내리나=FOMC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과 경기침체 위기에 맞서기 위해 작년 9월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5.25%에서 2.25%로 3.00%포인트나 떨어뜨렸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금리인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인하폭은 0.25%포인트에 그칠 것이며 금리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금융기관들의 올해 1·4분기 서브프라임 상각규모가 전분기에 비해 줄면서 신용위기가 완화된데다 미국의 경기침체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국내 증시에 '훈풍' 기대=미국이 금리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경우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금리인하 사이클의 종료가 미국의 신용경색 및 경기침체 우려의 완화로 해석되면서 국내 증시를 괴롭혀온 대외 불안변수가 경감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주요국 간의 금리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음에 따라 상품가격 급등을 초래한 달러약세 압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김지형 한양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FOMC에서 금리인하 종료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대변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경기둔화에도 금리인하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한국은행에도 인하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상수지 넉달 연속 적자

3월 중 5천만달러 … 상품·소득 수지는 흑자

경상수지가 넉달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3월 경상수지 적자 폭은 크게 줄었지만 이는 비자카드 뉴욕증시 상장에 따른 대규모 배당금 지급 등 일회성 요인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경상수지가 적자 기조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수출호조에 힘입어 상품수지가 석달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도 크게 축소됐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5천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올 들어 1~3월 경상수지 누적 적자규모는 51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억6천만달러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지난달 경상수지 적자 폭은 상품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2월 23억5천만 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

상품수지는 수입증가율이 전달과 비슷한 28.8%를 유지한 가운데 수출 증가율이 15.3%에서 20.6%로 높아지면서 전달 6억 달러 적자에서 5억3천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서비스수지는 운수수지 흑자가 늘어나고 여행수지 적자는 줄면서 적자규모가 전달 22억5천만달러보다 15억7천만달러 감소한 6억8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소득수지는 12월 결산법인의 대외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카드 뉴욕증시 상장에 따른 11억7천만달러 상당의 대규모 배당수입이 발생하면서 2억2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경상이전수지는 적자규모가 전달보다 8천만달러 감소한 1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자본수지는 직접투자 수지와 증권투자 수지가 유출 초과였으나 해외단기차입이 늘면서 기타 투자수지가 큰 폭으로 유입돼 3억9천만달러 유입 초과를 보였다.

한은의 양재룡 국제수지팀장은 "3월 경상수지 적자 폭이 줄어든 것은 비자카드 상장에 따른 배당금 지급 등 21억~22억 달러 상당의 비경상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이러한 요인을 제외한다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22억~23억 달러 적자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골 원두막 수박 광주신세계이마트는 1층 청과코너에 시골집 원두막을 설치,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해 하우스 수박을 판매하고 있다. 하우스 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단맛이 강하며 과육이 풍부하다. 7kg 미만은 1만5천900원, 6kg 미만은 1만3천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최저가 낙찰제 100억 이상으로 확대

국토부, 고속철·간선고속도 조기 완공 추진

고속철도와 간선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을 조기 완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사업 합리화와 사업비 10%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7~28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동북아 허브공항·항만, 고속철도, 간선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해 조기 완공하기로 했다. 이들 국책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로드맵은 10월까지 수정완료될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남 광양의 용강~덕례 국도 건설사업처럼 교통정체 해소효과가 낮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류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며 현장조사 기준을 강화해 부실조사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을 막을 계획이다.

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는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운영비를 줄이고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60개 적자역을 정비하고 지정체가 심한 고속도로 10개소에 차로제어시스템을 설치해 차량 지·정체시 갓길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의 경제성검토(VE) 활성화와 실적공사비 전환 확대, 품셈정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10%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창업, 집에 앉아서도 한다

내년 말 관공서 무방문 창업 '재택창업제도' 도입

공장 설립 환경규제 대폭 완화 … 최저자본금제 폐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창업 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이 내년 말부터 도입된다.

개발가능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에 면적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환경관련 입지규제가 폐지되고 산업단지가 아닌 공장용지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공장과 법인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창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전산망과 대법원망, 국세전산망을 연결해 법인 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재택창업 시스템(StartBIZ)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과 의사록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상업등기법 상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 상호를 금지하는 제도를 없애는 법 개정도 연말까지 마칠 방침이다.

지경부는 "동일 상호분쟁은 선진국의 사례처럼 사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규제 폐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최저자본금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가급적 내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법상 주권의 최저액면가액은 100원이나 개정 상법안은 무액면주식 발행도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자본금 1원인 회사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지경부는 "창업절차 간소화로 창업기간이 평균 167일에서 68일로 줄고 창업비용은 4천400만원에서 1천900만원으로 2천500만원이 절감되며 창업관련 행정비용도 연간 1천300억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최고 5천만원까지 상향

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현행 최고 4천5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중증의 후유 장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고 흉터 장해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원 판례도 반영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이나 장해 때 5천만원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의 연령이 20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일 경우 위자료 한도를 4천만원으로 제한하는 현행규정도 없어져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5천만원 한도에서 위자료가 지급된다.

피해자의 외모에 큰 상처가 났거나 치아가 손상됐을 때 장해 정도와 소득·연령 등을 감안해 계산한 후유장해 보험금이 나온다. 지금은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전신마비 상태가 됐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도의 후유장해'(장해 1, 2등급) 판정을 받아도 간병비가 지급된다.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교통비)이 현재 렌트비의 20%에서 30~50%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김성이 복지 "담뱃값 추가 인상 없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담뱃값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을 제대로 쓰는 것이 먼저"라며 당분간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성이 복지부장관은 이날 새로 제작된 TV금연광고 시사회에 참석해 "담뱃값 인상의 선결과제는 이미 걷히고 있는 건강부담금을 취지에 맞게 쓰는 것"이라며 "필요한 여러가지 사전 준비를 마친 후에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초 담뱃값 1천원을 인상하려던 복지부 계획과 달리 국회에서 500원만 인상됐고 나머지 500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며 추가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디자인시트	인터넷쇼핑몰운영 및 관리 사원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5/03	062-574-9182
동양생명 FC사업본부	광주지점 사무직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3	062-351-1380
㈜드림개발	[히딩크호텔]프론트 및 식음료팀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6	062-227-9525
대광산업안전	용접기사 및 초보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06	061-331-1240
㈜휴로넷	[주5일/2300만원]SK텔레콤 미납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5/07	011-299-7000
㈜드림랜드	회계,총무 / 웹프로그래머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7	062-227-4404
인포드림넷㈜	하나로텔레콤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07	062-236-0217
㈜HRN	[SK텔레콤 순천POST]기지국 유지보수 및 관리직 남직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08	062-529-2671
그린토건㈜	토목 공무 및 현장소장	초대졸/경력3년	2800~3000	05/08	062-942-4080
㈜메트로건설	해외사업, 각종계약서, 번역업무 담당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9	062-512-4033
㈜인산 광주공장	설비유지관리 담당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09	062-955-1609
에네스건설㈜	재무회계직 전문가	대졸/경력5년	2800~3000	05/10	062-572-5500
㈜오리온 호서팀	할인매장 판촉사원 (매장관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10	062-373-2393
전남대학교 자동화시스템	[국비무료]08년 이공계 현장연수사업 연수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1	062-530-045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하반기 소형 분양주택 30%

저소득 신혼부부 우선 공급

하반기부터는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과 공급방법을 규정하고 고령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2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재혼도 포함) 5년이내이고 이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월 이상)인 경우로 정해졌다.

혼인 3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가 1순위, 5년이내 출산이 2순위이며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이다. /연합뉴스